산업통상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1. 13.(목) 11:00 < 11.14(금) 조간 > 배포 2025. 11. 13.(목)

정부, WTO 무대에서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애로 해소 나서

- 2025년 제3차 WTO TBT 위원회 계기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다자·양자 협상 전개
- 인공지능·반도체 기술규제 및 표준 논의에서 좌장 및 연사 맡아 글로벌 논의 이끌어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위원회(11.10.~14.)에 참석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해외 기술규제 해소를 위한 다자 및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AI·반도체 등 신산업 기술규제 주제세션*에 참여하였다.

*특정 기술 분야와 관련한 각국의 정책, 제도, 경험을 교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비공식 토론 세션으로, 금번 TBT 위원회 회의에서는 신산업, 모범규제관행 등 논의

금번 위원회에서 정부는 과도한 인증 조건으로 가전, 석유화학, 화장품 등 우리 주력 수출 상품 무역에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네시아 가전 국가표준 강제인증 규정 ▲인도 톨루엔 품질관리 명령 ▲유럽연합 불소화온실가스 규정 ▲인도 필기·인쇄용지, 코팅지 및 보드지 품질관리 명령 ▲중국 화장품 및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등 기술규제 8건을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으로 제기하였다.

또한, 주제세션에서는 국내 전문가가 좌장* 및 연사**를 맡아 인공지능·반도체 관련 표준 논의 동향을 소개하고 기술규제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글로벌 무역 촉진에 기여하는 기술규제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에도 신산업 기술규제 관련 글로벌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관련한 국제 규범을 마련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권종원 센터장 / **한국과학기술원 이정철 교수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WTO TBT 위원회 계기 다자·양자 협의를 통해 인도 철강 제품 인증 애로, 호주 브롬계난연제 사용 금지 규제 등 다수의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해소한바 있다”고 강조하고, “업계가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의 TBT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협상과	책임자	과 장	정병락 (043-870-5540)
		담당자	사무관	고영노 (043-870-5356)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용민 (043-870-5520)
		담당자	연구사	채예린 (043-870-5525)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 솔 (043-719-1551)
		담당자	사무관	황재양 (043-719-155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WTO TBT 위원회 활동을 통한 애로 해소 사례**

□ WTO TBT 위원회 활동 개요

○ **WTO TBT 위원회 특정무역현안**(STC*) **대응**(3, 6, 11월) 및 기타 TBT 현안 관련 **양자협의**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 기술규제 애로 대응**

* Specific Trade Concern으로 각국이 TBT 위원회 회의시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기술규제 현안

□ '25년 WTO TBT 위원회 대응 성과

구분	국가	업계애로	대응	성과
1차 ('25.3)	인도	디지털TV 위성수신기 강제인증 제도의 급박한 시행에 따른 인증 지연 및 우리 업계 수출 차질 우려	STC 제기	시행 유예 ('25.4.26→'25.10.26)
	튀르키예	비도로용 이동식 기계(굴삭기, 불도저 등) 수입 검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증빙 요구 등으로 통관 문제 발생	양자협의 ('24년 3차 STC)	통관문제 해소
	인니	철강 제품 강제인증 시행 확대(안)의 급박한 시행으로 업계 수출 차질 우려	양자협의	시행 유예 ('25.5→'26.5)
2차 ('25.6)	인도	철강 중간재 강제인증 적용으로 일관제철소 생산품 인증 절차 진행 및 수출 차질 우려	양자협의	일관제철소 생산제품에 대한 강제인증 면제
	호주	상용화된 대체재가 없는 브롬계 난연제(DBDPE*) 수입·사용 금지안 발표로 동 물질을 사용하는 자동차, 건설기계, 가전, 의료기기 등 수출 차질 우려 *Decabromodiphenyl Ethane으로 플라스틱, 전선, 케이블 절연재에 사용	STC 제기 양자협의	시행 유예 연장 ('33→'37년) 및 건설기계 등 우리 수출품목 관련 시행유예 대상 포함
	베트남	정보통신제품에 내장된 리튬이차전지 성능 시험 요구로 업계 부담 가중 *ICT 제품 내장 배터리에 대해서는 통상 안전 시험만 요구	STC 제기	성능 시험 요구 철회